



저가커피
원두품질로
차별화 승부
나



Life

한미약품 ‘에페’
국산 비만치료제
시대 연다
L2



다채로운 색 모여 하나의 ‘프레임’으로… K팝으로 뭉친 청춘



새벽을 여는 사람들

신예 보이그룹 프레임 더 엑스

어떤 계절은 어떤 청춘은 어떤 한 문장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름이었다.’

푸른 5월, 프레임 더 엑스가 세상에 처음 올린 음악의 파동은 녹음이 질어지는 6월, 데뷔 무대 위 땀방울과 관객 환호에 뒤섞였다. 그리고 계절은 청춘은 단 한 번도 같은 문장으로 머물지 않는다. 살랑이는 바람으로 또는 길었다 짧아지는 낮의 그림자로 어느덧 성큼 다가온 가을 서늘한 공기로 계절은 매 순간 바뀐다. 하나의 정답이 아닌 서로 다른 청춘은 깊은 어울림으로 존재한다. 리더 아토의 유연함부터 막내 렌의 폭발력까지 서로 다른 좌표가 만나 세상에 없던 형태의 프레임을 형성한다. 신예 보이그룹 프레임 더 엑스(FRAME THE X)는 올해 5월 국내에서 하이브리드 댄스 팝 ‘노 엑시트(NO EXIT)’를 발매하며 6월에는 코리아넷 음악 프로그램 ‘심플리 케이 팝’에서 첫 데뷔 무대를 선보였다. 이들은 무더운 여름 속에서 일본 활동을 거쳐 하반기에는 남미 투어를 진행한다. 각 삶의 궤적을 그리는 청춘들이 캔버스에 저마다의 색을 그리는 서사가 계절과 함께 흐르고 있다.

‘코발트 블루’의 시작

모든 시작은 유연함에서 출발한다. 팀을 상징하는 색으로 ‘코발트 블루’를 꼽은 이들은 청량함과 신비로움 그리고 고착화된 틀을 깨부수는 자유로움을 품고 있다. 팀의 정체성을 묻는 첫 질문에 리더 아토와 반은 서로 다른 결의 매력을 내비쳤다. ‘새로운 음악이나 트렌드를 보면 심장이 먼저 뛴다’는 아토는 팀을 부드럽로우면서도 강하게 이끌고 있는 리더다. 그 결에는 진지함과 엉뚱함을 동시에 품은 반이 있다. 반은 소설이나 게임의 세계관에 매료되는 특유의 풍부한 감정의 소유자로 작사를 담당한다.

-프레임 더 엑스는 어떤 팀인가.

아토: 모든 재료를 함께 먹어야 맛있는 ‘비빔밥’ 같은 팀이다. 다른 성격과 배경을 가진 멤버지만 모였을 때 가장 완벽하다. **반:** 처음엔 불확실해 보여 물음표(?)일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느낌표(!)가 되는 팀이다.

-데뷔곡 노 엑시트는 어떤 곡이며 어떻게 즐겨야 하는가.

반: 하드 록과 트랩 힙합비트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댄스 팝 곡이다. 어두운 무대 위 핀조명 아래 붉은 가죽 재킷과 블랙 레더 스타일링으로 오프닝을 열면, 묵직한 베이스 라인 위로 매혹적인 도입부 보컬이 한순간에 몰입도를 높인다. 곡의 첫 부



왼쪽부터 로아(ROA), 리안(RIAN), 렌(LEN), 아토(ATO), 반(VVAN), 이온(I-ON).

/앤디아이 엔터테인먼트

5월 ‘노 엑시트’로 데뷔한 보이그룹 하드 록·트랩 힙합 비트 댄스곡 선배 멤버별 서로 다른 매력으로 시너지 국적·환경 다르지만 K팝으로 화합

멤버 부재·변수 속 결속 단단해져 일본 활동 거쳐 하반기 남미투어도 글로벌 문화·팬과 소통하며 성장 발라드·힙합 등 다양한 장르 도전

분과 랩에서 감성을 쏟아내고 있다.

아토: 도입부부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다가 후렴구에서 에너지가 완전히 폭발하는 구간이 진짜 포인트다. 음원에는 없지만 무대와 뮤직비디오에서만 볼 수 있는 댄스 브레이크 세션이 있는데 비트와 퍼포먼스 모두 매력적이나 꼭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다.

렌: 클라이맥스로 넘어가기 직전의 연결 구간이 지나고 대형이 양옆으로 순간 갈라지면서 제가 중앙 전면을 향해 파워풀하게 돌진하는 구간을 제일 추천한다. 주변 공간이 확 열리며 팬들 앞으로 다가설 때 쾌감이 엄청나다. 가사 템포에 맞춰 손가락으로 ‘X’ 자를 그리거나 사각 프레

임을 만드는 핸드 제스처도 눈여겨볼 요소다.

이온: 곡의 마침표를 찍는 엔딩 제스처 파트를 가장 좋아한다. 마지막 한 박자에 맞춰 전원이 얼굴 앞에서 손가락 사각 프레임 만들어 시선을 고정하는데 무대의 화룡점정을 찍는 장면이다.

로아: 후렴구가 터지기 직전 관객들이 직관적으로 따라 부르기 쉽게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파트와 후렴 직전의 랩 구간은 힐링 포인트다.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구간이라 들을 때마다 신이 난다.

서로를 묶는 에너지

첫 무대를 앞두고 중국인 멤버 이온이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와 빈자리가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걱정이 엄습할 때, 역설적이게도 멤버들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다.

-멤버 부재 속 팀 분위기는 어땠나.

아토: 부재한 멤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결국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밤을 새우며 동선을 재정비하고 서로를 믿으며 제 역할을 다해준 덕분에 무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로아: 파트와 동선을 재배치하면서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서로를 다독였다.



프레임 더 엑스가 지난 8월 오사카 플러스원 홀 무대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하고 있다.

팀에서 긍정 비타민 역할을 하고 있는 로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과 운동으로 몸을 예열하는 부지런함으로 굳건한 중심을 잡았다.

-홀로 마음 졸였던 이온에게도 멤버들이 힘이 됐다.

이온: 모두가 정말 따뜻하게 품어줬다. 중국 속담에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먼저 위(胃)를 잡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도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마음의 불안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우리들’

국적도 자라온 환경도 다르지만 K팝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뭉쳤다. 지난 7월부터 일본 대형 음반·서적 복합 매장 HMV&BOOKS 시부야 이벤트, 오타 문화의 숲 홀 라이브, 나고야 지역라디오(MID-FM) 생방송 등에 이어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아우르는 재팬 라이브 투어 2026 여덟까지 쉽 없이 내달렸다.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무료 공연도 꾸며 진입장벽을 낮췄고 팬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가르쳐줘 포켓!’, 클럽 연출이 더해진 ‘클럽 데이’, 교복 차림으로 교감하는 ‘스쿨 콘서트’ 등 특별 기획으로 현지 팬들과 거리를 좁혔다. 막내 렌의 경우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인연으로 글로벌 현지 문화와 팬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간다.

-일본 활동 중 가슴 깊이 남은 에피소드가 있다면.

아토: 일본 특유의 ‘최애(오시·推し)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매번 다른 주제의 여러 현장에서 남녀노소 다양한 팬분들을 마주했다. 특히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아주신 가족 단위 팬분들이 많았는데 아이가 응원봉을 흔들고 어른이 노래를 같이 불러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렌: ‘노 엑시트’ 하이라이트 훅이 터질 때 관객들과 눈을 맞추며 전면으로 돌진하는

그 순간의 소름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곡이 끝나고 멤버 전원이 손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시그니처 포즈를 취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희열이 느껴진다.

끊임없이 나아갈 약속

이제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고 이들의 시선은 도미니카,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남미로 향한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넘어 스페인어와 프랑스어까지 독학하며 여러 팬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욕심도 내본다.

한편 프레임 더 엑스는 새로운 멤버 ‘이랑’의 합류 소식을 알리며 팀의 새로운 변화와 확장을 예고했다. 멤버 ‘리안’ 역시 대학 입시 준비라는 학업 일정으로 당분간 활동을 쉬어가지만 이들이 함께 만들어갈 프레임은 비움과 채움을 반복하며 한층 단단해지고 있다.

-앞으로 어떤 팀으로 남고 싶나.

로아: 장르에 갇히고 싶지 않다. 발라드부터 힙합까지 도전하며 다 보여드리겠다.

이온: 1년, 10년이 지나도 초심을 잃지 않는 그룹이 되겠다.

반: 언제나 집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음악을 하면서 조금씩 계속 발전해 나가겠다.

어떤 계절은 지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명쾌해진다. 봄의 설렘과 여름의 열기를 지나 온 ‘프레임 더 엑스’의 시간이 그러하듯 지나온 날들은 청춘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은 노력과 진심으로 가득 차 있다. ‘프레임 더 엑스’의 청춘은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그리고 있어 다가올 모든 계절 속에서 더욱 넓게 확장될 것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모레노호 다녀온 구성윤 “좋지만은 않은 분위기…중간 역할 필요”
▲키움, 재정비 위해 선수단 정리 단행…박주성·심희윤 등 8명 방출
/사진 뉴시스

▲K리그1 꼴찌 광주, 난적 울산 4-3 제압…29경기 만에 승리
▲노벨문학상 앤 카슨, 서점가 돌풍…교보 판매량 203.9배 ↑

▲파리서 펼쳐진 K-헤리티지…참가자 1만 명 몰렸다
▲가을빛 물드는 한국…단풍 절정, 수도권 10월 말·남부 11월